

중등 영어과 교과서 집필의 실제*

임 병 빈
(공주대학교)

Im, Byung-Bin. (2011). The practical exemplification of producing English textbooks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2), 199-218.

This study is to explore one of efficient procedures in producing English textbooks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a series of changes in the National Curriculum, new textbooks have been selected and used in English classes. *Textbooks* are one of the fundamental factors in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s together with *learners* and *teachers*. So this study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textbooks and presents the practical model of producing English textbooks including activity books, from major aspects such as planning, writing, editing, selecting, etc. The current government has made continuing efforts to improve English education development by administrating innovative policies [strategies]. However, there still remain lots of difficulties in this gigantic task, which is not an exception in the matter of textbooks. Therefore, to provide students with better textbooks,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invest great funds but also renovate the present polluted system of selecting textbooks.

[producing English textbook/activity books/innovative policies/selecting textbooks, 영어교과서 출간/학습활동책/혁신 정책/교과서의 채택]

1. 서론

국제화·정보화 시대 내지는 지식기반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21세기의 현대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국어, 특히 영어는 종합적 정보 획득의 매개체이자 중요한 생활수단으로 간주된다. 날로 발전하며 변화하는 미래를 맞아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초·중등학생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은 학교 현장에서 신장시켜야 할 어느 능력 못지않게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영어교과는 필수적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 이 논문은 2010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대적 환경과 교육적 필요성을 반영한 제 7차 교육과정은 200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초·중등학교 교육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이 그동안 현장교육에 적용 되어 오면서 그 내용과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 동시에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회적 평가는 공교육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점점 더 커져왔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의 경우 사교육기관을 통한 영어 교육이 주류를 이루어 왔고 중학생들도 사설 학원 교육에 매우 의존하는 형태이며, 고교 영어교육은 대학입학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여전히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타개하는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5년에 시작된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배경은 영어과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 연구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영어 교과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공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이 가진 역할을 정립하여 국제화·정보화 사회 속에서 현대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함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외국어과 교육과정(I),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6-75호 (2006.8.29)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영어과 성취기준의 연계성 보완 및 난이도 적정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선을 목표로 수준별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교 현장 정착을 도모하였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그 동안 학급 중심 운영 체제로 인하여 재이수가 불가능하였고, 심화과정 내용까지 학습함으로써 학습량의 부담을 초래하였던 수준별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단일 교육과정으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교육과정의 차별화를 통한 수준별 교육을 교수학습 방법의 차별적 적용을 통한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함이다. 이는 과거의 수준별 교육과정과 수준별 이동수업을 중심 모형으로 한 수업 방식의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각 학교 현장에 적합한 수준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과서, 평가방법, 집단 편성 및 운영 그리고 재정 지원 방안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박선화 외 7인, 2005).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과 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2009학년도 신입생(중·고교)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영어교육의 효율성과 관련된 변인은 다양하지만 Brown(2007)은 제 2언어 습득 내지는 학습에서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들(who/what/how/when/where/why?)로 압축하였으며 Larsen-Freeman(1987)은 언어교육의 세가지 요인(teacher/learner/language)이 기본적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교수학습의 주된 내용을 좌우하는 교재에 초점을 맞추어 중등영어 교과서의 저작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고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영어과 교과서의 집필의 실재를 제시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어교수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교재 저작에 있어서의 참조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어교재의 의의와 저작 및 채택

영어교재는 영어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재가 교수자, 학습자와 더불어 교수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재가 편찬되기까지 사전에 기초적인 영어교육 상황 모형에 입각하여 교재가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교수학습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과정체계가 필요한 것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박경자와 장복명(2002)은 영어교육 상황모형을 그림 1 과 같이 제시하였다(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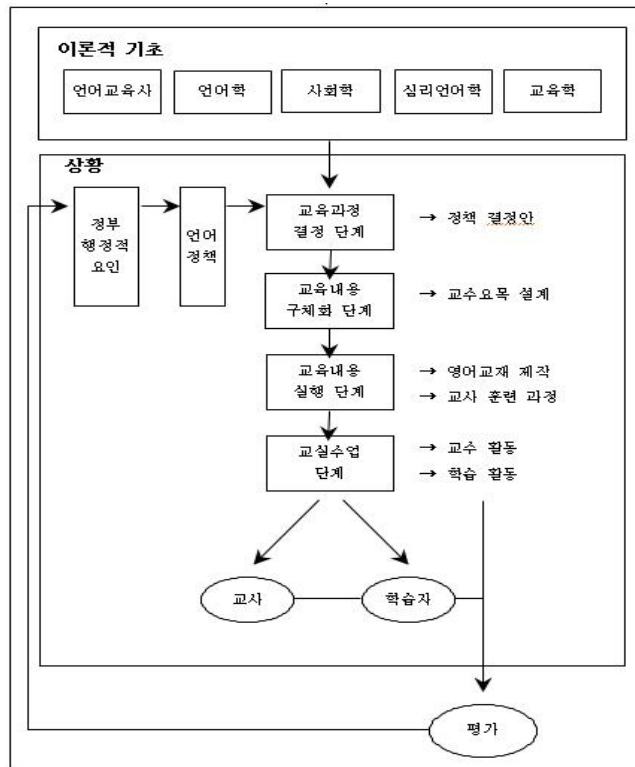
영어교재의 집필과 편찬은 언어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상황에 적합하게 체계적인 단계를 통하여 교재의 내용과 형식이 구조화된다. 국가의 언어정책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 과정이 결정되며 개편된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과 방법 등을 「교육과정 개정고시」로 공표한다. 고시된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재의 편찬지침과 검정기준」이 마련되며 이에 따라 교재집필팀과 출판사에서 교재 저작 활동이 진행된다.

그동안 교과서 사용의 찬반 논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Allwright (1981)은 교과서의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했고 O'Neill(1982)은 교과서 사용의 필요성과 장점을 옹호했으며, 또한 Hutchinson과 Torres(1994)는 교과서가 방법론적 변화를 초래해주는 촉진체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좋은 교과서는 일관성 있는 교수자료를 제공해주며 언어를 만족스럽게 통제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과서의 텍스트와 더불어 오디오·비디오 테이프와 CD-ROM 그리고 웹사이트 등의 보조자료는 학습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과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로 고민하는 교수자에게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교사용지도서가 제공되어 학생용 교재를 수업에 지도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에 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학습활동에 대한 제안,

대체방안 및 교과서 이외의 기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도움도 제공한다 (이재근, 2002; 장복명, 1999). 잘못 사용된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에게 부적절한 학습스타일과 학습내용을 강요하는 폐단이 있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 수록된 단원의 내용들이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반복적일 경우에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는 교과서에 포함된 단원별 화제의 선택이 때로는 맹목적이거나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Harmer, 2001). 따라서 교과서의 활용에 앞서 그 채택의 타당성과 신중함이 요구되며 동시에 교과서 활용에 있어 통찰력 있는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다.

그림 1
영어교육 상황 모형



현행 중등학교 영어교과서는 「영어 교육과정 개정 고시(제 2006-75호)에 따른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의거하여 채택된 교과서들이 사용되고 있다. 종전의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과 큰 차이점은 중1부터 고1까지 기본 교과서와 ‘학습활동책’이 저작되는 동시에 ‘수준별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활동책 속에 최소한 3단계(상·중·하)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내용과 평가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교재의 채택에 관하여 기본적 고려사항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교재의 집필과 편찬의 중요성 못지않게 교재의 채택 또한 영어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교재와 관련된 연구물을 찾아보면 대체로 교재 저작보다는 교재의 채택과 활용에 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Byrd, 2001; Harmer, 2001; Rivers, 1981).

Rivers(1981)에 따르면 교재의 채택기준은 (i) 교육현장의 상황에 필요한 적합성, (ii) 교사와 학생에게 도움되는 적합성, (iii) 언어수준 내용의 적합성, (iv) 언어 사용기능의 취급과 통합적 구조, (v) 의사소통 연습사례의 제시, (vi) 실용성 및 (vii) 부록자료의 적절성에 이르는 7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Harmer(2001)는 교재 채택의 참고적 기준으로서 (i) 가격, (ii) 유용성, (iii) 구성과 디자인, (iv) 지침, (v) 방법론, (vi) 교수요목 유형과 등급화, (vii) 언어학습 활동, (viii) 화제, (ix) 문화 수용성, (x) 교사용지도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Byrd(2001)도 교재선택의 평가 기준 대상으로서 (i) 내용/설명, (ii) 예시, (iii) 연습사례/과업활동, (iv) 제시와 형식, (v) 교사를 위한 제공물 등을 언급하면서, 교사는 자유로운 대리인(*free agent*)으로서 자신이 맡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교수자료를 창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가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교과서 개발 및 편찬에 관한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어 '교과용 도서 편찬 방향'과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교과용 도서 외형 체제'에 관하여 검정 기준을 발표하고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하는 형식을 취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영어과 교과 기준으로 제시되는 심사영역으로는 (i) 교육과정의 준수, (ii) 내용의 선정 및 조직, (iii) 창의성, (iv)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v)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vi) 표기·표현 및 편집이 있고, 총 25개의 세부항목 기준을 마련하여 100점 만점의 평가기준을 활용한 바 있다.

2. 목표 언어로서의 영어

오늘날 국제어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어의 위상 또는 성격에 관하여 Brown(2007)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위한 국제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EIL)의 급속한 성장은 요즈음 흔히 '세계 영어(world Englishes)' (Kachru, 1965, 1992)라 불리는 영어의 다양한 형태의 지위에 대해 흥미롭고도 종종 서로 대립되는 논의를 촉진시켜왔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의 영어 학습은 인도에서 인도 영어(Indian English)를 배우는

것이므로 새로운 문화 습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Kachru에 따르면, 인도에서의 영어의 ‘인도화’는 영어가 영국의 문화적 속성을 거의 갖지 않는 상황을 빚어낸다. 이러한 영어의 ‘토착화’ 또는 ‘고유화’(Richards, 1979)의 과정은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나이지리아, 가나 등을 포함한 ‘원외 (outer circle)’ 국가들로 퍼져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는 흔히 학령기의 어린이들이 배우게 되며 대부분의 초·중등 교육의 수업 언어(medium)로 사용된다. EIL의 보급과 층 형성(stratification)은 Kachru와 논쟁에 가담해 온 다른 학자들(예를 들어, Davies, 1989; Phillipson, 1992; Tollefson, 1995)로 하여금 영어 사용 상황을 아래와 같이 새롭게 개념화 하도록 해 주었다.

원어민과 비원어민 간의 전통적인 양분법은 기능면에서 통찰력을 갖지 못하며, 언어학적으로 질문의 여지가 많다. 특히 다언어 사회에서 영어의 기능을 논할 때 그러하다. 모국어로서의 영어(ENL), 제 2언어로서의 영어(ESL), 외국어로서의 영어(EFL) 등 이전의 구분은 사회 언어학적인 것 이외의 이유들로 인해 반박을 받고 있다(Kachru, 1992).

대신에 광범위한 영어의 기능과 한 국가사회 속에 영어가 침투한 정도에 의해 영어를 고찰하도록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영어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영어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살아야 할 환경은 국가 간의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됨과 동시에 국가 간 상호의존도는 점점 심화되면서 국제적 경쟁과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정보 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동은 개인생활에서 국가 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영어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로서 각기 다른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들과의 의사소통과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영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수는 약 4억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영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약 15억 명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에서 제 1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2%이지만 모국어와는 별도로 인터넷에서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인구는 추산이 어려울 정도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달과 함께 중산층들 또한 영어 확산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경제적인 발전 뒤에는 영어의 보이지 않는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Graddol, 2006).

따라서 미래를 살아야 할 초·중등학생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야 하는 일은 국가적인 역점사업이라고 보여진다. 교양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영어를 학습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점점 더 고도의 영어실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어의 세계적인 위상과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살펴 보았다. 끝으로 목표어로서의 영어를 종전에 지향해왔던 거의 전적으로 미국 영어(American English)를 영어교육 학습 목표로 일방적으로 지지해 왔던 방향은 이제 문제가 다소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21세기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서 국제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의 성격은 어느 특정 국가(예로써, 미국 또는 영국)의 언어가 유일한 의사소통 모형으로서 배타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이므로 소위 '표준어(standard language)'로서의 미국영어는 그 가치가 인정되고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간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세계 영어로서 충분조건은 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갖춘 영어(varieties of English)에도 관심을 갖고 교수 학습 상황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목표 언어 학습 및 언어 사용

목표 언어인 영어 학습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는 수차례 교육과정을 개정 하면서 초·중등 영어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 교육 정책 중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요약해보면 먼저, 1997년부터 시행된 초등 영어의 정규 교과목 채택, 원어민 보조 교사 활용에 의한 영어 회화 수업 활성화 방안,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현직 영어 교사 연수, 영어 교사의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실시, 영어 교과목의 수준별(이동) 수업 권장,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 교육, 영어로 영어 수업 진행하기(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 등 끊임없는 투자와 새로운 전략을 투입하여 왔다.

그러나 초·중등 영어 교실의 학습 상황은 기대한 만큼 그 성과가 도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입시제도(대학입학수능시험 영어)에 따른 영어 학습의 현실적 목표와 교육과정 상의 EFL상황에 처한 우리의 영어 학습 환경으로 인하여 교실에서 학습한 영어를 교실 밖에서 거의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인 입시제도 개선을 통하여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이상적 목표만이 아닌 현실적 목표로서 영어 교실 수업에서 활용되어 학습자의 진정한 영어 학습 목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 스스로가 영어를 배워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주어진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어 학습 동기가 유발되는 동시에 교실 수업도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 주며 전반적인 교수학습과 평가과정도 이에 초점을 맞춘 학습 상황을 조성하고 학습 내용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언어 사용에 관한 관점으로는 영어 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유창성(fluency)과 정확성(accuracy) 발달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Brown, 2001; Diaz-

Rico, 2004; Harmer, 2001). 유창성과 정확성은 상보적 개념으로서 의사소통 과정에 둘 다 필요한 요소이므로 이 중 어느 하나에만 치중할 경우 의사소통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과생될 수 있으므로 교수 자료와 학습 활동에서 유의해야 하겠다.

이와 아울러 외국어과 교육과정(I)(교육인적자원부, 2007)의 ‘언어 기능’에 관한 내용 체계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이해와 표현 면에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언어 사용 능력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겠다.

4. 언어 교육

오늘날의 사회는 옛날과는 달리 매우 복잡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아주 유동적인 사회상황이다. 그 많은 학습요인 중에 얼핏 생각만 하여보아도, 배우는 학생, 가르치는 교사, 교육내용이 담겨진 교재, 사회적인 상황, 외국어 교육목표,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 등이 있으며 이들 하나하나의 요인에도 내적으로 다양한 하위 변인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외국어 교육을 담당한 교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어느 하나의 교수방법을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자신이 경험과 이론적 지식에 바탕을 둔 현명한 판단에서 자기 나름의 통찰적인 교수방법을 모색하여 외국어 학습지도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Larsen-Freeman(1987)은 범세계적인 EFL 교육상황에서 취급되어온 교수 방법론 적 문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①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
- ②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
- ③ 교수학습 대상의 언어

Larsen-Freeman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교수방법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교수방법과 최근의 새로운 교수 방법을 총 망라하여 위에서 언급한 3요소를 고려한 유동적이고 탄력 있는 절충적 교수 방법(principled eclecticism)의 채택이 오늘날의 EFL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교수방법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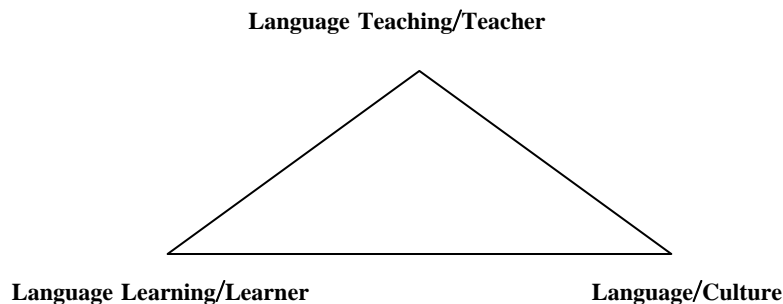
효과적인 교수방법론에 관한 Larsen-Freeman의 입장은 Brown(2007)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Brown의 주장에 의하면, 교사는 편협한 아집이나 독선을 버리고 끊임없는 연구자로서 기존의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를 공부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적용해 보는 절차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실험자적인 자세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방법은 그동안 신·구 교수방법의 다양한 발전과정을 겪어 왔던 ‘다양성 (diversity)’의 과거에서 현재는 서서히 ‘통일성(unity)’의 방향으로 지향 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일성’의 방향은 위의 Brown이나 Larsen-Freeman의 주장에서 논의 된 것처럼 여러 가지 교수방법을 이론과 실제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한 상황의 교사, 학습자 및 학습대상 언어에 최적의 교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융통성 있고 선택적인 복합체로서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EFL 교육상황에서 교육의 기본적 원리와 방법도 일반적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사, 학습자 그리고 교육내용(언어)의 3요소적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rsen-Freeman (1983, p. 3)이 제시한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언어교육의 총체적 요소를 포괄시키면서 3요소 사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의 총화를 통해 교수이론과 교수방법이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
언어교육의 3 요소



III. 교과서 집필의 내용과 방법 사례

여기에서는 본 연구자가 저자로 참여한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영어교과서(임병빈 외 7인, 2009) 집필의 실제적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목표를 준수하여 교과서의 전반적인 목적과 기본 개발방향을 정립 하고 이에 따른 교과서의 특성과 구성체제를 소개한다.

1. 전반적인 목적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 호 [별책 14] 외국어과 교육과정(I)에 있는 중학교 영어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저자로 참여한 집필진의 교과서 및 학습활동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임병빈 외 7인, 2009).

첫째, 기본적으로 영어과 교육과정(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개별 학습 및 집단 학습 그리고 수준별 학습이 용이하며 효율성 있는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과서와 학습활동책 집필에 앞서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 과정을 거쳐 자체 집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집필과정 중에도 필요 시에는 수정 단계를 거쳤다.

둘째,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을 높일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한다. 실생활 경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역경 극복과 탐험 정신, 스포츠, 여행, 문학과 예술 그리고 가족과 사랑 등을 소재로 채택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학습이 도출되고 우리 문화와 영어권 문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 문화 이해를 드높인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본 교과서의 내용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기능별 학습 활동을 단계적(학습 전/학습 중/학습 후)으로 연계시켜 학습 난이도 및 활동 유형의 다양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이해와 표현 기능이 서로 잘 배합되도록 하였고 동시에 총체적 의사소통 활동의 학습도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본 교과서에서도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제시된 과업 활동을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특히 학습활동책에서 교과서 내용과 연계하여 보충·심화 학습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활동책의 평가 과제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성취 정도에 대한 진단·형성 평가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자기 발견적 학습이 가능해진다.

다섯째, 과제 및 활동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 학습자 중심 내지는 학습 중심에 초점을 두어 교사 위주가 아닌 학생 중심의 학습 성취 및 의사소통 능력 숙달을 목표로 학습 활동과 평가 과업들을 수행한다. 따라서 영어의 언어적 지식과 담화 수행 능력 및 배경 지식(schema)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재미있고 활용이 편리한 교과서와 학습활동책이 되도록 한다. 편집, 삽화 처리 및 디자인 등에 최대한 유의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친근감을 주며 학습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학습 내용 중간 중간에 <Do It Together>, <English Amusement Park>, 또는 <Ms. Photo's Backpack>과 같은 「쉬어가기」 코너와 「문화 이해」 코너 등을 함께 실어놓았다.

2. 기본 개발 방향

영어과 교과서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새로 마련된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은 본 집필진이 제작한 교과서와 학습활동책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영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둘째,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선정하여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습 과제 및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실시하여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준별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책을 편성하였다.

다섯째,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며 활용이 용이한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여섯째,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 위하여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의 각 기능별 학습 활동 및 통합적인 언어사용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특징

본 교과서 및 학습활동책의 집필에 있어서 집필진은 영어과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현장연구, 학술 연구 및 공청회 자료 등을 참조하여 집필 계획을 면밀하게 설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집필 계획안을 여러 차례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박순경 외 5인, 2006; 이의갑 외 5인, 2006; 임찬빈 외 9인, 200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6). 본 집필서의 특징을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지적, 정서적, 신체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이에 알맞은 흥미롭고 다양한 소재를 선정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소재의 내용도 ‘개인 생활’에서 ‘정서 순화’에 이르기까지 균형성과 구조화된 구성에 유의하였고 특히, 우리 문화, 영어권 문화 나아가 보편 문화에 이르기까지 국제화 사회 속에서 세계시민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학습 소재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

둘째,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촉진시키는 교재를 고안하였다. 기본 교과서의 구성을 다양화시켜 교과서 안에서도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언어 사용 기능(듣기·말하기·읽기·쓰기)마다 제시된 학습 활동 중 교사가 선택적으로 교실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난이도 또는 과업 유형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학습 과업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와 연계하여 학습활동책에서는 체계적인 수준별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과서의 활동 과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후속활동(follow-up activities)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셋째, 자기 주도적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모든 학습 활동에서 학습자 중심 내지는 학습 중심 과업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는 교수 자료의 안내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탐구 학습, 자기 발견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해와 표현, 기능 모두에서 개방형 학습과업들을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기본 교과서의 <Active Listening>, <Bridge to Talk>, <Talk! Talk! Talk!>, <Talk in Action>, <Active Reading>, <Think and Answer>, <Write It Right>, <Do It Together> 코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병행하여 학습활동책에서도 <Sounds Great!>, <Reading Journey>, <Writing Planner>, <Word Library>, <Practice Makes Perfect>, <Ms. Photo's Backpack> 등도 기본 교과서를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 수준에 따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학습 평가가 교사와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진단 평가, 형성 평가, 능력 평가)를 올바르게 제공하여 교수학습과 평가의 귀환 작용(washback effect)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준별 학습을 전제로 각 단원 안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문제 유형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다섯째, 문화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보다 한층 더 강조된 문화 이해를 위한 학습에 역점을 두었다. 기본 교과서의 듣고 말하기 기능을 기를 수 있는 대화의 소재 및 읽기 소재 선정 시에 목표어 문화 학습을 지향한 기준을 고려하여 문화 소재의 다양성, 우리 문화와 영어권 문화 사이의 상호 이해, 보편 문화적인 세계 문화에 관한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였다. 직접적으로는 기본 교과서에서 매 두 단원 간격으로 문화 이해 코너를 마련하여 교실 활동 또는 과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끝으로, 교과서와 학습활동책이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학습용 도서 저작물의 표현, 표기 및 편집이 올바르고 창의적이며 실용성이 유지되도록 구성하였다.

4. 전체 구성 체제

영어 교수학습 현장에서 학습자와 교사는 교과서를 매개로 하여 긴밀한 상호작용 관계를 맺게 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유지될 때, 영어 학습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언어 기능 측면에서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의사소통 활동 측면에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언어 재료 측면에서 소재,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와 같은 하위 요소들이 교육과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을 주의 깊게, 그러면서도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교과서와 학습활동 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 하에 집필되었다.

첫째, 세계화 시대를 선도해나가야 할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자 언어 활동보다는 음성 언어 활동을 보다 중시 하되 보다 깊고 높은 수준의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자 언어 활동도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균형잡힌 언어 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및 언어 능력의 차이와 같은 개인차를 존중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슷한 과제라 하더라도 수준별 난이도에 차이를 둬으로써 수준별 교수학습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고 자신에게 알맞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의 재미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중학교 1학년의 인지적 및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활동은 듣기나 읽기와 같은 이해 기능 중심의 활동뿐만 아니라 말하기나 쓰기 같은 표현 기능 중심의 과업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고 역동적인 수업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네 가지 언어사용 기능이 번갈아 통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체적 교수법을 바탕으로 기능 통합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학습의 내용이 되는 소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여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유발시켜 학습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 음성 언어 활동 중심 교육

초등학교에서 익힌 음성 언어 중심의 교육과 연계성을 이루도록 음성 언어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중시하되 문자 언어도 점진적으로 다룸으로써 균형 잡힌 언어 능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의사소통 기능을 학습목표로 선정하고 이를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의사소통 기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나선형 교육과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상황을 가능한 한 많이 도입함으로써 선정된 학습목표가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언어 상황에서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보다 높은 수준의 언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문자 언어 활동 또한 문제 해결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음성과

문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언어 사용 기능들이 골고루 발달될 수 있도록 질적 측면 및 양적 측면 모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2) 개인차를 존중한 수준별 교수학습

학습자는 나이에 따른 인지적 성숙도, 주의 집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 영어에 대한 선수 학습 경험의 정도에 따른 언어 능력 수준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영어 학습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같은 내용의 교수학습 활동이라 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예시의 유무 및 예시를 제공하는 수준을 조절하거나 활동 자체의 난이도 수준 등을 적절히 변형하여 제시함으로써 개인차를 존중한 수준별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같은 유형의 문제라 하더라도 연습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난이도가 달라지도록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학습 진보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3) 과업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학습자가 자신의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게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 기능 및 표현 기능 모두에서 다양한 과업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유형이나 선호도 면에서 균형잡힌 교과서가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다. 또한 개인 활동, 짝 활동, 집단 활동 및 전체 활동이 번갈아 활용될 수 있는 과업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활동 유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 단원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역할극, 노래, 게임 등 다양한 유형의 집단 활동을 마련함으로써 역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흥미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상호 경쟁적인 관계보다 협조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 기능 통합 위주의 활동

언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교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벗어나 교실 밖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마주쳤을 때, 교실에서의 언어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길러진 언어 능력이 바탕이 되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이나 정보를 음성 및 문자로 표현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실 밖의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언어사용 기능들이 통합되며 순간순간 달라지는 상황에 임기응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교과서와 학습활동책에서는 하나의 과업 활동을

계획함에 있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언어 기능이 통합될 수 있도록 조직하였다.

5) 학습자 중심의 소재 선정

학습의 내용이 되는 단원의 소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와 몰입이 이루어지도록 개인 생활로부터 출발하여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 등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외국어 학습이 가진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어휘 수를 충실히 준수하였고 표현 기능과 관련된 학습활동에서는 단일 문장의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에 어울리는 현대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관련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국제적인 감각 또한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5. 단원 구성 체제

1)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

(1) Active Listening: 제시되는 그림이나 상황을 통하여 듣게 될 내용을 미리 예측해본 다음, 들은 내용에 따라 Listen & Check, Listen & Match, Listen & Find, Listen & Write 등의 다양한 통합 활동을 통하여 의사소통 기능을 익힌다.

(2) Bridge to Talk: 듣기 활동을 통해 길러진 의사소통 기능을 바탕으로 간단 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말하기 활동과 연결시킨다.

(3) Talk! Talk! Talk!: 주어진 문장과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하여 대화를 연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요 의사소통 기능을 학습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Talk in Action: 학습자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해봄으로써 단원의 학습목표인 의사소통 기능을 심화시키며 대화 내용과 관련된 주제나 요지도 요약하여 말해본다.

(5) Active Reading: 학습자 자신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가정, 학교, 사회, 세계, 미래 등으로 확장되는 다양한 소재의 글감을 읽고 새로운 어휘에 유의하면서 글의 주제나 세부 사항을 찾아보며, 해당 단원의 언어형식도 학습한다.

(6) Think and Answer: 글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T/F 나 간단한 형태의 쓰기 과업을 통해 어휘 및 이해력을 점검한다.

(7) Write It Right!: 다양한 상황 문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의사소통 기능이나 언어 형식이 포함된 문장이나 글을 완성해본다.

(8) Do It Together: 의사소통 기능이나 언어형식이 포함된 프로젝트 형식의 과업활동을 모둠별로 완성하고 발표하면서 주요학습 내용을 정리·활용해본다.

(9) Blocks for Communication: 실질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활동 중심의 간단한 과업을 제시하여 발음, 의사소통 기능, 언어 형식을 총 정리하고 이를 Let's Build a House 를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본다.

(10) English Amusement Park: 학습 내용과 관련된 재미있는 모둠별 활동을 통하여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2) 학습활동책 단원 구성 체제

(1) Sounds Great!

교과서의 'Active Listening', 'Bridge to Talk', 'Talk! Talk! Talk!', 'Talk in Action'과 연계하여, 기본·보충·심화의 세 수준으로 듣기·말하기가 통합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의사 소통 기능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한다.

(2) Reading Journey

교과서의 'Active Reading' 및 'Think and Answer'와 연계하여, 기본·보충·심화의 세 수준으로 주어진 글감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읽기 능력을 정교화 하는 한편, 언어 형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3) Writing Planner

교과서의 'Write It Right!'과 연계하여, 다양한 쓰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 경험, 느낌 또는 주변 생활에 대해 간단히 써 봄으로써 언어 형식을 실제 표현 능력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4) Word Library

각 단원에서 제시된 어휘에 대하여 의미 파악, 문맥에서 함께 사용되는 어휘 찾기 등의 활동을 통해 실제 상황에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지식이 내재화되도록 한다.

(5) Practice Makes Perfect

각 단원에서 학습한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 형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활용해 보게 함으로써 중요한 학습 내용이 정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고양시킨다.

(6) Cool Down

각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총 정리하는 단계로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 형식의 의미와 사용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7) Ms. Photo's Backpack

각 단원 내용과 관련하여 Ms. Photo 가 소개하는 다양한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는 동시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바로 알게 한다.

IV. 결론

국제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어로 일컬어지는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비영어권 국가들은 저마다 영어 교육을 국가적인 주요 현안으로 간주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교육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현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와 「교육과학기술부 영어 공교육강화단」으로 부터 혁신적인 영어교육 정책들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정치권 내지는 행정부로부터 쏟아져 나온 주요 영어교육 정책들은 대부분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뜨거운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 과도기를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러한데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 확충(전용 교사제 도입)」, 「국가영어 능력시험으로의 수능 영어시험 대체방안」, 「영어 전용교실 구축 및 활용」, 「중·고교의 전면적인 영어 사용 영어수업」 등의 사안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언어 습득 및 외국어 학습에 작용하는 변인들은 실로 방대하면서도 다양하다. 습득 내지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가장 잘 기술한 대표적인 연구는 Brown(2007)이 제시한 언어습득의 생태학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p. 307). 그의 그림 중 입력(input) 요소에 교과서와 자료(textbook & materials)가 주요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Larsen-Freeman(1983)이 제시한 언어교육의 3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언어 및 문화’이며, 여기에서 ‘언어 및 문화’란 다른 아닌 교수학습 자료이다.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 배우는 학생, 그리고 교수학습 내용(교과서를 포함한 자료)이 유기적인 체계로 작용하여 활성화될 때 언어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영어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 과제의 하나인 교과서 제작과 관련하여 기존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한 개편 교육과정에 준거하고 동시에 교실 수업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실용성과 효율성을 갖춘 교수학습 활동들을 「기본교과서」와 「학습활동책」의 형태로 담아 영어과 교과용

도서로 집필된 실제 사례를 제시해 보았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 보급된 영어교재는 2009 학년도 중·고 신입생부터 적용되어 현재 전 학년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공교육이 흔들리고 질타당하는 한국적 교육의 현실에서 영어 교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교과서’ 및 교과서 검정제도의 제한점과 학교·학급별 수준 차이로 빚어지는 문제점, 정부의 재정 자원의 한계점 등으로 개인차가 있는 개별 학생에게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잠재우기 어렵다. 학교 교육은 개인보다는 학급·학년 단위로 대상을 삼아 공교육 차원에서 교실 수업 활동이 수행된다. 따라서 평균적인 수준을 가정하여 학습 자료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의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최소한 상·중·하 난이도의 차별화된 수준별 교과서 저작과 활용이 현장 영어교육에 접목되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교과용 도서 외에 개별화 학습에 필요한 부수적인 학습자료 개발 및 활용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재 저작을 민간출판사에 맡겨 검정합격을 위한 과당 경쟁을 야기시키는 동시에 검정에 합격된 출판사들의 교재채택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불공정 거래의 비리 시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올바른 교재채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권고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영어·수학 교육과정 개정 고시(제 2006-75 호)에 따른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외국어과교육과정(I):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 호[별책 14]*.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박선화, 박순경, 이문복, 이의갑, 정영근, 조영미, 최수일, 홍완기. (2005).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05 교육인적자원부 위탁과제 답신 보고*.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경자, 장복명. (2002). *영어교재론*. 서울: 박영사.
- 박순경, 이양락, 이광우 외 3 인. (2004). *제 7 차 교육과정의 쟁점 분석 연구: 연구 보고 RRC 2004-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순경, 허정철, 이광우, 정영근, 김진숙, 민용성. (2006).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 개선 연구(II): 연구보고 RRC 2006-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의갑, 김미경, 김진석, 박준연, 오준일, 이문복, 이옥근, 이윤, 이현우, 이혜원, 이효신, 임찬빈, 장경숙, 진경애, 최진황, 홍완기, 박상화. (2006). *영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2006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탁과제 답신 보고*.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근. (2002). 영어교과서 개발의 최근 동향. *영어어문교육*, 8(1), 241-259.

- 임병빈, 송해성, 한혜령, 박혜숙, 윤상돈, 안희성, 박미라, 박휴버트. (2009). *Middle School English*. 서울: 성안당.
- 임찬빈, 이의갑, 진경애, 김진석, 장경숙, 김미경, 이문복, 이혜원, 최진황, 이윤, 박상화. (2006).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2006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탁 과제 답신 보고*.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장복명. (1999). 표현기능 지도내용 분석을 통한 현행 중학교 영어교과서 평가. *영어어문교육*, 5, 123-14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연구자료 ORM 2005-3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6). *외국어 교재 개발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6 학술대회 발표 논문 초록집*.
- Allwright, R. (1981). What do we want teaching materials for? *ELT Journal*, 36(1), 5-18.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2nd ed.).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 Byrd, P. (2001). Textbooks: Evaluation for selection and analysis for implementation.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415-428). Boston, MA: Heinle & Heinle.
- Davies, A. (1989). Is international English an interlanguage? *TESOL Quarterly*, 23, 447-467.
- Diaz-Rico, L. (2004). *Teaching English Learners: Strategies and Methods*. New York: Pearson Education.
- Graddol, D. (2006). *English Next*. London: British Council.
- Harmer, J. (2001).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3rd ed.). Essex, England: Pearson Education.
- Hutchinson, T., & Torres, E. (1994). The textbook as agent of change. *ELT Journal*, 48, 315-328.
- Kachru, B. B. (1965). The Indianness in Indian English. *Word*, 21, 391-410.
- Kachru, B. B. (1992). World Englishes: Approaches, issues, and resources. *Language Teaching*, 25, 1-14.
- Larsen-Freeman, D. (1987). Twenty-five years of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English Teaching Forum*, 25(4), 2-10.
- O'Neill, R. (1982). Why use textbooks? *ELT Journal*, 36(2), 104-111.
-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ollefson, J. (1995). *Power and Inequality in Language Edu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예시 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tion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임병빈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14-701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

Tel: (041) 850-8189

Email: rainbow@kongju.ac.kr

Received in March 15, 2011.

Reviewed by April 20,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y 15, 2011